



集乳制度의 一元化

林 英 植

1. 우리나라의酪農産業은 比較的 짧은 사이에刮目할 만한 量的인 成長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成長課程에서 하나의 産業으로서 短期的인 問題도 여러차례 있었으나 이를 政府施策의 뒷받침과 業界의 共同努力으로 요행이 넘길수가 있었다. 그러나 좀더 根本的이고 長期性을 지닌 問題들은 어쩔 수 없이 덮여 두었거나 核心을 避해 온것도 否認 못할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는 酪農産業全體의 産業으로서의 規模나 차지할 比重 등으로 미루어 現段階에서 다음段階로 바뀌어 저야하고 發展的인 變化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時期가 왔다고 하겠다.

即 酪農産業의 構造的인 變化의 必然性으로 表現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時期가 온 以上 産業自意的으로 그리고 能動的으로 合理的인 方法을 모색하고 立案하고, 施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萬一 그대로 내버려 두어진다면 그 다음 提起될 問題들은 國家的으로나 産業的으로 많은 浪費와 發展의 沮害要因이 될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酪農産業의 構造的인 變化를 가져오는 데는 몇가지 重要한 內容이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編輯者의 要請대로 集乳의 一元化에 對하여 쓰고자 한다.

集乳의 一元化는 우리나라 酪農産業의 變化를 가져오는데 가장 커다란 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2. 最近 여러經路의 討論, 研究, 提案等으로 現行 우리나라의 集乳制度에 改善의 余地가 많음이 指摘되 오고 있음은 實 多幸스러운 일이다.

現行 集乳制度는 酪農産業의 成長과 더불어 여러課程의 自然的인 또는 人工的인 變遷을 거쳐왔다.

다음은 集乳制度랄가 集乳方法의 變해은 課程을 便宜上 時期的으로 區分하여 보고자 한다.(酪農史의 時期的인 區分을 위한 것이 아니고 集乳만 關聯지어 생각해 본 것이다)

첫째(1960年初까지)

6.25動亂 以前의 것은 省略하고 그 以後부터의 경우를 보면 이때는 集乳가 아니라 納乳하는 形態로서 生産者가 온갖 容器(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이 휘발유 스페어 캔)에 原乳를 채워 各種 運搬手段(自動車, 牛馬車, 지게 등)을 動員하여 乳處理場까지 가져와서 檢収해 주기를 가다리고 있던 그런 時期였다. 이때는 民間企業形態의 乳業體는 하나도 없었다. 서울, 釜山, 大邱 등 大都市 中心으로 이루어진 協同組合에서 授乳 處理하는 狀態였으며 生産者가 納乳되

는 것만으로도 滿足해야 했기 때문에 이 時期의 大部分의 問題는 非需期에 納乳조차 못하는 酪農家의 어려움이였다.(當詩 國內에는 加工施設이 一個處도 없었다). 그러자 어떤 市場에서는 아예 병市乳를 直接 生産하여(牛乳를 끓여서 씻은 병에 채우거나 병에 넣어서 찌는 方法, 冷却은 안됨)인근 에 配達販賣하는 소위 家內處理場도 볼수 있었다.

둘째(1962~1970)

第一次經濟開發5個年計劃에 依한 最初の 酪農振興計劃이 세워진 時期로서 우리나라 酪農産業 發展의 章이 열리는 重要的 意味를 갖는 때이다. 政府는 酪農基盤의 造成을 爲하여 젓소의 增殖과 導入, 草地造成等에 補助와 融資를 통한 強力한 施策을 推進하였을뿐 아니라 生産物處理를 爲하여 여러地域에 乳處理加工場을 서둘러 設置 하기에 이른다. 酪農振興法과 草地法이 公布된 것도 바로 이 時期이다.

또한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民間企業에 依한 乳業體가 登場한다.

이 時期에 처음으로 納乳에서 集乳로 轉換하게 되는데 過渡期이었으므로 地域事情에 따라 納乳와 集乳가 달리 이루어지기도 한다. 納乳인 경우에도 이때 흔하던 三輪추력에 依한 集團納乳가 시작된다. 容器는 처음으로 18~20 키로그램드리나 40킬로그램드리 스테인레스 鐵製 牛乳輸送罐이 普及되기 시작한다.(日本에서 잠시 輸入되었던 알미늄관은 무게와 값 때문에 곧 자취를 감춘다)

納乳에서 集乳로 옮겨지면서 同時에 酪農地域이 擴散되었기 때문에 集乳距離가 길어졌고 集乳車는 大部分이 無蓋추력이었으므로 輸送中 變質(특히夏節), 減量等の 問題들이 일기 일수였고 檢査, 計量 場所가 輸送이 끝나는 處理加工場이기에 오는 問題, 그리고 乳代算出이 그때만 해도 重量에 依했기 때문에 牛乳에 加水하는 事例가 빈번하여 受乳하는 側과 生産者間的 紛争의 素地가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셋째(1971~1976)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맞는 高度經濟成長期로서 모든 產品의 消費高調와 더불어 牛乳도 年平均 30%라는 놀라운 消費增加를 가져온다. 이때 순수한 民間企業이 여럿 參與하게 되며, 젓소 導入이 擴大되어 乳業體도 積極的으로 젓소를 들여다 入殖시켜 各業體別 集乳圈擴大에 熱을 올린다. 이리하여 酪農地域은 全國으로 擴散하게 된다.

이 時期에 納乳는 完全히 자취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業體間 集乳競爭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971~1972年사이 短期的인 牛乳消費의 沈滯를 除外하고는 持續的인 높은 消費增加로 牛乳의 生産이 需要에 미치지 못하는 狀態에서 乳業體사이에서는 原乳確保가 곧 販賣市場 占有라는 분위기가 強해져, 常識을 벗어난 集乳競爭을 하게되면서 集乳路線의 重複이 늘어나고, 어떤農家나 特定한 地域에서는 乳業體와 特惠를 爲한 個人 或은 團體 흥정이 오고가 原乳의 移動이 잦았다. 그러면서도 業體와 生産者間的 對立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原乳의 質은 좋을리가 없다. 단지 이 時期에 나아진 點은 集乳場이 몇군데 생겨 集乳距離와 不合格乳를 줄이는 努力이었다.

더욱 甚化되는 集乳의 混亂을 더 默過할 수 없어 政府는 급기야 1976年 11月“健全한 酪農家 發展에 沮害要因이 되는” 이러한 實態를 수습하기 爲해 集乳先凍結措置를 하기에 이른다.

넷째(1977~1983)

集乳先凍結措置로 原乳流通의 不條理가 一時에 解決되리라 期待한것은 아니다. 集乳先을 同措置 施行日로 묶은 것이지(하도 混亂하여) 集乳問題를 당장 根本的으로 다루려고 한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 後續措置와 함께 徐徐히 다루어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 後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實態는 多少 變했고 季節的

인 非需期에는 좀 조용해 지는 것 같았다. 政府는 다시 1980年 12月 全國 各 市 道知事에게 指示, 原乳의 流通 去來秩序의 確立과 不合理 點을 市 道 單位로 改善토록 措置하였으나 別 效果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期間에 特記할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乳代를 脂肪率에 依해 計算하기 始作했고(1977年), 둘째는 原乳의 抗生物質混入에 依한 檢査를 하기에 이르렀다(1978年),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乳質改善에 커다란 契機가 된 것이다.

1979年의 第二次 油類波動과 1980年의 마이너스 經濟成長으로 牛乳消費도 多少둔화하여 集乳의 過熱競争도 주춤하는듯 하더니 1981年부터 牛乳消費가 다시 回復되면서 集乳競争은 다시 일기 始作했다. 더우기 1981年 原乳供給이 계속 不足하여 業界 自體分은 勿論 他 食品業界의 供給分(大部分 粉乳)도 問題되어 政府는 1982, 1983, 1984年 需給用으로 全脂粉乳와 脫脂粉乳를 輸入하기에 이른다. 위 粉乳가 그 後 國內粉乳在庫 增加에 影響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것보다는 其他用途로 들어오는 各種乳製品의 量이 더 크다는 事實을 알아야 할 것 같다(例 1985年 粉末狀態 乳製品輸入量 21,800톤),

이 時期에 韓國乳加工協會와 韓國酪農肉牛協會가 탄생하여 對話의 場이 마련되기도 한다.

다섯째(1984~현재)

最近 産乳量이 많이 增加하면서 牛乳消費가 牛乳生産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1984年부터), 輸入되었던 粉乳의 影響도 있다고는 하나 業體마다 粉乳在庫로 經營收支가 나쁘다는 소리가 높다.

젖소 約 40萬頭에서 벌써 供給過剩이 온 것인가? 아직은 아니고 조금더 있어야 供給過剩 時期가 올 것인가? 사람에 따라 意見이 다를 것이나 앞으로는 原乳를 合理的으로 管理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는 異論이 없다.

集乳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서 競争도 없어지고 部分的으로는 地域의 양보도 이루어졌다. 乳代支拂도 時期가 一定치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乳代一部를 物品으로 代替하는 例도 있다.

한가지 極히 多幸한 일은 1984年부터 1986年에 걸쳐 탱그 로-리集乳가 定着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이는 原乳의 衛生的인 品質改善과 集乳에서 오는 몇가지 問題들을 解決해 줄 수 있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牛乳의 特性은 農産物中에서도 餘他 農産物과 달리 每日年中 大量이 持續的으로 生産되며 그대로는 保存性이 없는 原料이다. 또한 牛乳를 生産해내는 酪農産業은 많은 投資와 技術과 經驗이 必要하기 때문에 長期的인 與件變化에 對應할 수 있는 면밀한 計劃이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集乳의 一元化는 必要한 것이며 우리나라 全體의 酪農을 하나의 유니트로 보고 計劃的인 시스템下에 둬으로서 客觀的이고 公正한 集乳와 適正한 配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 專擔機構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서 原乳의 円滑하고 均衡있는 需給, 生産者와 業體間의 마찰解消, 現集乳制度에서 오는 여러 가지 浪費의 防止, 生産者 業體, 나아가서는 消費者까지 安心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은 우리나라 酪農産業의 둘째번 章이 열리도록 이를 爲한 共同努力이 必要한 時期임을 指摘하고 싶다.

민족의 영광 · 겨레의 도약